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생긴다

순창 동계면·적성면 섬진강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조성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와 적성면 석산리 '장군목' 일대 섬진강변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가 조성된다.

순창군은 "최근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뽑혀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섬진강 생태탐방로'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섬진강 길'이 조성된 이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반딧불이 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간이숙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 탐방로 걷기 행사를 통해 자연의 숨결을 만나면서 숨겨진 마을의 옛 이야기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섬진강 이야기마을'인 적성 슬로공동체와 연계해 순창지역의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입석마을의 돌담길을 복원하게 된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가 조성되는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 일대 항공사진.

〈순창군 제공〉

생활박물관과 옛날 전통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숙박시설은 물론 산에서 나는 약초를 이용한 '자연초 밥상' 등을 개발해 '건강한 밥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섬진강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산림을 통해 삶을 치유해주는 용평산 산림 테라피, 가족단위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마실 휴양숙박단지, 장군목 '요강바위' 등 풍부한 볼거리는 어린 시절 간직했던 생활풍습과 향수 어린 시골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요강처럼 움푹 팬 '요강바위'는 높이 2m·폭 3m 크기로, 20여 년 전 도난을 당했다가 마을주민들의 노력으로 1년6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바위이다.

현재도 섬진강 생태탐방로는 때론지

않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간 3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숨겨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된 생태관광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 고창군 "보리로 만든 커피 맛보세요"

(주)청맥 '케이-커피' 시음회

볶은 보리+커피...저카페인

"보리로 만든 커피는 어떤 맛일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볶은 보리에 커피를 섞은 저카페인 '보리커피'가 고창에서 개발돼 화제다.

고창 아산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청맥(대표 김재주)은 보리차와 같이 부드럽고 편안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외국 제품과 비교 연구한 후 상품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국내 1만여 소비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등 4년여 노력 끝에 '케이-커피'(K-coffee)라는 브랜드로 지난해 출시했다. 브랜드명은 국내에서 최초로 커피를 이용한 고품질제의 스토리를 접목했다.

이 제품은 보리를 볶아 가루를 낸 뒤 커피와 섞은 것으로, 보리 함유량 51%와 30%의 2가지 종류다. 커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카페인 성분을 크게 줄



지난 3일 제1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보리커피'를 시음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인 것이 특징이다.

(주)청맥은 지난 3일 '고창 청보리밭 축제' 현장에서 'K-coffee' 시음회를 가졌다. 시음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느껴진다'며 호응을 보였다.

김재주 대표는 "현재 커피산업은 원두 수입만으로 1조원이 넘게 지불되고 있

며, 이중 10%만 보리로 대체할 수 있어도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보리재배 농가의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성을 강조하는 소비자 욕구 변화에 부합하는 저카페인 커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창=음향기 기자 cy0370@

정읍경찰서 교통 캠페인

단속·교육·시설개선 등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정읍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읍경찰은 4월부터 '시민이 안전한 정읍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종합 대책'을 수립해 ▲중앙로 일대 상습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시설개선 ▲교통 약자를 위한 사고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경찰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내권인 중앙로 일대(정읍역~카파사거리)와 시외권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자원봉사 등을 동원해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상습 교통법규 위반행위(무단횡단·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계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설 개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홍보, 단속 활동을 펼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중국 항저우 시민들이 최근 남원 광한루원에서 전통 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남원시와 중국 항저우시는 지난 2011년부터 문화교류를 갖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남원시 중국 항저우시민 전통혼례

광한루원에서 8쌍 올려

지속적 문화 교류 확대

중국 절강성 항저우(杭州) 시민 8쌍의 전통혼례가 최근 남원 광한루원에서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전통혼례식에서 항저우시민 8쌍 중 3쌍이 백년해로의 부부 인연을 맺었으며, 기혼자인 나머지 5쌍은 전통혼례를 체험했다.

남원시와 중국 항저우시는 지난 2011년 우호결연 이후 전통 차(茶) 교류와 전통혼례 추진, 언론인단 내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한국 전통혼례를 체험하고 싶은 기혼부부나 초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로 2회를 맞은 항저우 시민 전통혼례를 통해 '사랑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절강성 성도(省都)인 항저우시는 인구 800만 여명의 대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전주시, 택시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대당 월 1만원 총 3851대

전북 최초...승객 불편 해소

전주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는 택시회사가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기피, 시민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업체는 요금의 2.1%를 카드회사에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카드결제를 사실상 기피, 올해 1~3월 카드 결제율은 15%에 불과했다.

시는 올해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택시 1대당 월 1만원까지 지원해줄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내 법인·개인택시 총 3천909대 중 98.5%인 3851대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함에 따라 카드를 쓰는 승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 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센터 080-234-6588